박원자의 母情佛心 ⑳ 진묵 대사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작은 석가로 불리는 조선시대 선지식 진묵 스님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다고 전해진다. 스님은 병환이 깊은 어머니를 업고 참선 수행을 했고, 어머니가 죽은 후 제사를 걱정하자 "천년 간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할 것"이라고 서원했다. 이는 김제 성모암 창건의 계기가 된다.

"열 달 태중 은혜, 무엇으로 갚으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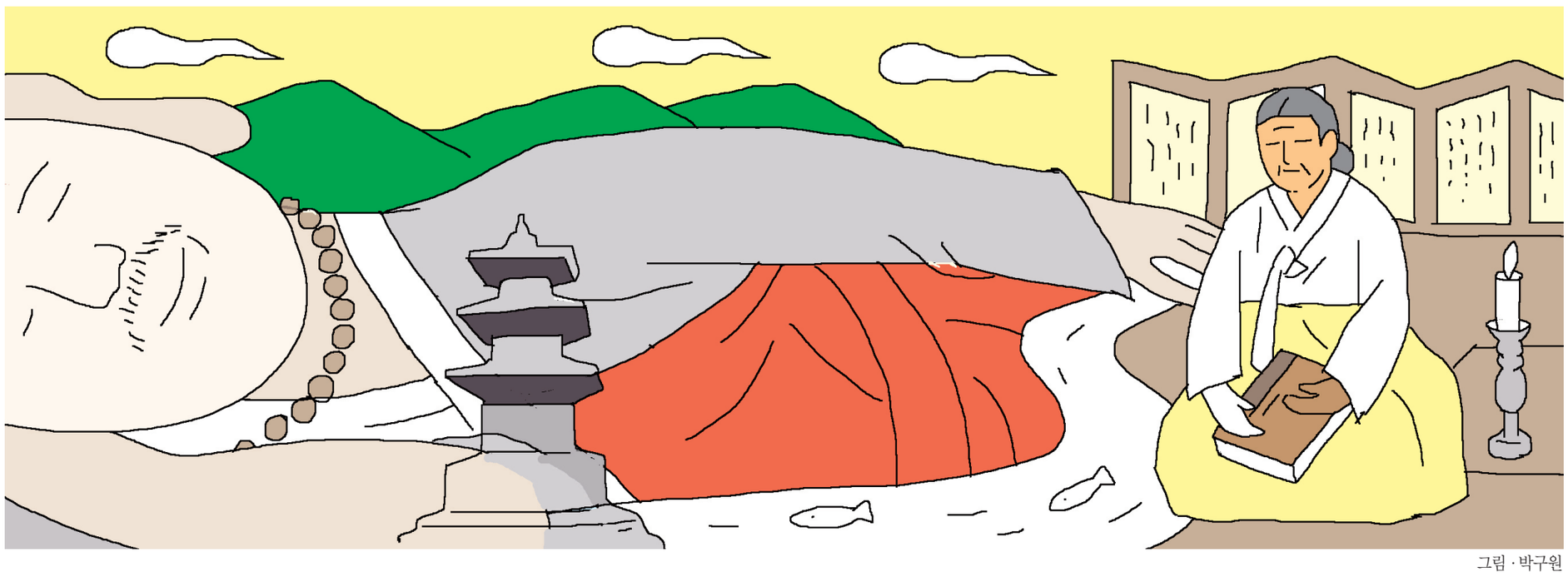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하늘이 맑다. 마음을 허공에 비유한 이유를 알 것 같은 계절이다. 저 허공을 '작은 석가' 라고 불리는 조선시대의 진묵(震默, 1562~1633) 스님은 이렇게 노래했다.

하늘을 이불로 삼고 땅을 자리로 삼고 산을 베개로 하며
달을 촛불로 하고 구름을 병풍으로 바다를 술잔으로 하여
크게 취해서 그대로 일어나 춤을 추니
도리어 긴 소매가 곤륜산에 걸릴까하노라

전란과 기근으로 인해 힘들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시를 토해낼 수 있었던 내면의 경지가 얼마나 넓었을지 궁금하다. 시를 대하는 것만으로 자유로워지는 것 같다. 선(禪)의 종장 혜능 선사가 말한 '한 물건' 의 실체를 보는 느낌도 든다. '한 물건이 있으니, 위로는 하늘을 받치고 아래로 땅을 괴었으며, 밝기는 해와 같고 검기는 칠통과 같아서 항상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 있되, 그 가운데서 거두려 해도 거두지 못하는 이것, 이것이 무엇인가?'

'우레에 같은 침묵' 이라는 뜻의 진묵(震默)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은 스님은 어머니에 대한 효행으로 유명하다. 조선시대 후기의 초의 선사는 진묵 스님을 이렇게 소개했다.

'도력은 하늘보다 높고, 효행은 땅보다 넓었으니 마땅히 후세에 본받을 일이다.'

진묵 스님은 일곱 살에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봉서사(鳳捿寺)로 출가했다.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당쟁과 전쟁으로 얼룩졌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절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다. 아마도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절 문에 들어섰을 것이다. 어린 아이에게 주지 스님이 물었다.

"네 나이가 몇이냐?"

"일곱 살입니다."

"네 몸이 일곱 살이냐? 마음이 일곱 살이냐?"

아이가 대답 대신 물었다.

"스님은 머리가 백발이신데 머리가 세었습니까, 마음이 세었습니까?"

"내 머리가 센 것이지 마음이 센 것이 아니다."

"저도 몸이 일곱 살이 된 것이지 마음이 일곱 살은 아닙니다."

이 영특한 어린 아이가 사미승으로 있으면서 신중단에 향불을 올리는 소임을 맡고 있을 때다. 주지 스님의 꿈에 신중들이 나타났다.

"우리는 부처님을 호위하는 신장인데 어찌 부처로 하여금 우리에게 예경하고 부처가 향을 피우게 하는가."

이 비범한 어린 사미가 얼마나 총명했던지 경전을 배우는데 조금도 막힘없이 뜻을 헤아렸고 한 번 스친 문장은 그대로 외웠다고 한다.

봉서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당시 걸출한 유학자로 알려진 봉곡(奉谷) 김동준이 살고 있었다. 진묵 스님은 그와 정신적 학문적 교유를 나누고 있었다. 하루는 봉곡이 진묵 스님에게 〈성리대전(性理大典)〉을 빌려주고 사람을 하나 딸려 보냈다. 진묵 스님은 책을 짊어지고 걸으면서 한 권씩 대강 훑어보고는 길가에 버렸다. 뒷날 봉곡이 물었다.

"책을 빌려가서 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오?"

"고기를 잡은 뒤에는 고기를 잡는 통발은 잊는 법입니다."

봉곡이 책을 꺼내어 내용들을 물었다. 이에 진묵 스님은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대답했다.

진묵 스님은 변산 월명암, 전주 원등사, 대원사 등지에 머물며 수행에 전념했다. 수많은 일화와 종교적 체험을 통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당쟁과 전쟁이 극심한 시기였다. 서른한 살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 전쟁의 참상을 목격했지만 승병을 조직해 국난을 극복했던 서산과 사명대사처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중들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살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호흡했다. 7년에 걸려 이어진 전쟁에서 의지할 데 없이 불안한 백성들에게 진묵 스님은 구원자이자 살아있는 부처였다.

한번은 길을 가다가 소년들이 물고기를 잡아 시냇가에서 끓여 먹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잘 놀던 물고기들이 죄 없이 삶아지는 괴로움을 받는구나."

"선사께서 이 물고기를 잡숫고 싶은가보군요."

"준다면야 먹지."

그리고는 솥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부처님께서 살생을 금하셨는데 스님으로서 고깃국을 드셨으니 어찌 참다운 스님이라 하겠습니까?"

> **조선代 선사 진묵 스님 효행 유명**
> **병환 깊은 어머니 업고 참선 수행**
> **"천년동안 제사 끊이지 않게 할 것"**
> **김제 성모암 창건, 모친 영령모셔**

"물고기를 죽인 것은 내가 아니지만 그것을 살리는 것은 내 하기에 달렸지."

그리고는 냇가로 내려가 변을 보자 고기들이 살아서 물 위로 솟구치며 뛰놀았다.

정진 또한 깊이 했다. 봉서사 근처 암자에 머물 때 일이다. 함께 머물던 스님이 먼 곳으로 탁발을 하러 갔다가 한 달이 지나서 돌아와 보니 진묵 스님의 얼굴에 거미줄이 쳐졌고, 무릎 사이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선정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초의 선사가 기록한〈진묵조사유적고(震默祖師遺蹟考)〉에 스님에 대한 다양한 일화와 영험담이 실려 있다.〈성리대전(性理大典)〉을 모두 외웠고, 천신(天神)들의 공양을 받았으며, 허공을 날았다는 일화들이 수록되어 있다.

진묵 스님은 고승이면서 유학을 잘 알았다. 해서 유교에서의 덕목인 가족 간의 효도와 우애를 실천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깊었던 일화가 몇 가지 전해진다.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어 자신이 주석하던 절과 가까운 곳에 모시고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뵈었다. 어느 더운 여름에 모기가 극성을 부려 어머니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알고 산신에게 부탁해서 모기떼를 다른 곳으로 가게 했다는 일화가 전해질만큼 어머니에게 효성이 깊었다. 어머니가 병마에 시달릴 때 어찌할 도리가 없어 등에 업고 참선수행을 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자기 대신 어머니를 모시느라 혼기를 놓치고 가난하게 사는 누이가 자신이 있던 절에서 곡식을 빌려갈 때, 갈 길을 밝게 하려고 해를 붙들어 두었다가 누이가 집에 당도할 즈음에 해가 넘어가도록 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세월이 흘러 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출가승이 되었으니 제사는 누가 지내주고 묘는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천 년 동안은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고향인 만경 유앙산(현 조앙산)에 묘지를 정하고 장사를 지냈다. 그리고 49재 때 영전에 제문을 올렸으니 그 사모곡은 다음과 같다.

열 달 동안 태중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오.
어머니 슬하에서 길러주신 그 은혜를 이 자식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세(萬歲) 위에 다시 만세를 더 사신다 하더라도 이 자식의 마음에는 그래도 부족하온데 백 년 생애에서 백년마저 다 채우지 못하고 가셨으니 어머니의 수명은 어찌하여 그리도 짧습니까?
노상에서 걸식하며 살아가는 이 산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비녀를 꽂고 규중에 있으며 아직 출가하지 못한 누이동생이 어찌 애처롭지 않겠습니까.
제단에 올라 불공을 마치고 스님들은 제각기 방으로 돌아가고 앞산 뒷산만 첩첩한데 어머니의 영령은 어디로 떠나셨습니까?
아! 애달프도다.

하늘을 이불로, 땅을 침상으로 삼고 살아가며 그 무엇에도 걸림 없었던 대자유인에게도 어머니의 존재는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이리도 절절하게 사모곡을 써 바친 것을 보면 말이다.

진묵 스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모친의 묘에 제사를 지내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향과 초를 올려 참배하도록 했다. 어머니의 묘소는 지금 김제군 만경읍 화포리 조앙산에 모셔져 있다. 훗날 그 옆에 성모암(聖母庵)이 지어졌다. 그리고 그곳은 자손이 없어도 천 년 동안 제사와 공양의 향불이 끊이지 않는 곳(無子孫千年香火之地)이 되었다. 법력으로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참배를 하고 있으니, 스님의 어머니는 수행자인 아들로 인해 성모(聖母)로 불리며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뿌리인 어머니를 멀리 하고 수행자라 자처할 수 있겠는가. 효심이 천심이요 불심임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진공묘유(眞空妙有), 텅 빈 충만' 을 드러낸 가을이 깊어간다.

〈작가〉

www.eunhae-sa.org

팔공산 은해사 창건 1212주년 개산대재

아미타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미타도량 은해사는 신라 헌덕왕 원년(서기809년) 혜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신지 1212주년이 되었습니다.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 조사 스님들의 선맥(禪脈)이 이어 온 은해사 대법회에 교계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개산대재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기2565(2021)년 11월

개산대재 대법회 및 만등불사

■ 행사개요

행사명 : 도 · 시민이 함께하는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제
일 시 : 2021년 11월 20일(토) ~ 21일(일)
장 소 : 경상북도 영천시 팔공산 은해사 일원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주 관 : BTN불교TV
후 원 : 경상북도, 영천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프로그램

개막 축하공연 : 웅산밴드 축하공연(11월 20일, 18시)
개산대재 법요식 : 11월 21일(일) 오전 11시
도·시민이 함께하는 은빛 음악회 (11월 21일, 17시~20시)
• 출연가수 : 송가인/ 김수희 / 진성 / 김연자 / 김용임 / 은가은 / 강민
소프라노 채미영 / 테너 김상진
• 사 회 : 도경완 (전 KBS 아나운서)
전시 프로그램
• 은빛바다 라이트 가든(LED 플라워)
• 불(佛)빛 유등 거리 조성
무대 프로그램
• 경천신명회 공연
• 민속줄타기 공연

■ 문의 : 종무소 (054)335-3318 원주실 054)335-5220, 은해사 교구 각 말사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은해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본·말사